

작년 광주·전남 가계 부채 증가율 전국 최고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가계부채 분석

1년 새 가계부채 잔액 4조8000억 원 늘어
 청년층·고령층 부채비중 높아...대책 시급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가계 부채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1년 새 가계부채 잔액도 4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이 중현·민다한 과장)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가계부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광주·전남 가계부채 증가율이 9.6%로 전국 평균(8.3%)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12.6%)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을 상회한 수치다.

광주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8.7%, 전남은 10.6%로 전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0년 말 광주·전남 가계부채 잔액은 54조7000억원으로 전년(49조9000억원)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광주 12.9%, 전남 16.8%로 비은행에 비해 급기급기 높았다.

대출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을 상회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 대비 각각 9.7%(1조6000억원), 11.7%(1조 원)상승했다. 광주지역 증가율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차주당 가계부채 규모는 광주(8300만원)와 전남(7300만원) 모두 전국(8900만원) 타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차주당 부채 증가율은 광주가 12.7%, 전남 16.2%로 높게 나타났다.

부채 비중도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30대 이하 청년층(12.6%)과 60대 이상 고령층(17.2%)의 부채 증가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가운데 부채 비중은 전년 말 대비 각각 1.1%포인트, 1.2%포인트 상승했다.

전남지역도 30대 이하 청년층(16.8%)과 60대 이상 고령층(17.9%)에서 상대적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부채 비중도 각각 1.4%포인트, 1.5%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 연체율은 광주 0.9%, 전남 0.8%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은 청년층과 고령층이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가계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본부



호우 피해복구하는 장병

7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남 진도군 진도읍 시장에서 육군 장병들이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이틀간 500mm’ 비 뿌린 광주·전남, 기상 기록도 ‘역대급’

일일 강수량·시간당 최대 강수량 등 ‘경신’...막대한 피해 발생
 해남·진도·고흥·장흥·영암 등서 총 2만 4526ha 버는 침수피해

500mm 안팎의 기록적 장맛비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대부분 해제됐다.

광주기상청은 7일 오후 4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11개 시·군(여수·순천·나주·담양·장성·곡성·구례·화순·고흥·보성·영광)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 다만 앞서 정오에 광양에 발효된 호우주의보는 유지 중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일일 강수량은 화순 북면 106.5mm, 곡성 100mm, 광주 무등산 80mm, 광양 백운산 60.5mm, 순천 황전 53mm 등으로 앞서 광주·전남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500mm 안팎의 장맛비가 쏟아졌다.

7일 일일 강수량·시간당 최대 강수량 등 기상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이번 장마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토사유실·매물·범람·침수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 6일 오후 1시 25분께 신안군 자은면 한 저수지 인근 편도 1차

선 도로에서 A(40·여)씨가 물던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A씨와 A씨 남편(50)이 숨졌으며 같은날 오후 11시 20분께 장흥군에서는 장맛비 속에서 농경지를 살피던 집을 나선 80대 A씨가 자택에서 500여m 떨어진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장마로 인해 버는 침수 피해가 해남·진도·고흥·장흥·영암 등에서 총 2만 4526ha가 발생했고 밭작물 116.3ha와 과수 4.3ha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지역의 9개 시·군 115농가가 축사 피해를 입었으며 5개 시·군 13농가에서 한우 4마리, 닭 15만 9000마리, 오리 5만 1000마리 등 총 21만마리의 가축이 폐사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주택 495개 동이 침수 피해를 입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142곳이 파손되면서 이재민 471세대 771명이 발생해 이중 55세대 68명은 불어난 물로 인해 마을이 침수되어 일시

대피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도 23호선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일원엔 도로가 파손돼 통제 후 응급복구 중이다.

지난 밤 사이 충청 지역으로 북상했던 장마전선이 오후 들어 다시 광주·전남 지역에 접근하며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는 8일 새벽까지는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우선 광주·전남 지역의 호우특보를 해제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80mm이며 전남 남해안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사흘간 300~5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라며 “적은 비로도 큰 피해가 우려되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피해규모 조사와 함께 응급복구 인력 투입 등을 위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박선미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덥고 비 잦은 요즘, 세균성 장염 주의하세요”

고온다습한 날씨와 장마가 시작되면서 고열과 복통, 설사를 동반한 세균성 설사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위생과 음식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2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설사환자 검체 분석 결과, 5월에 28.4%였던 세균성 병원체가 6월 들어 증가하기 시작해 6월 4째주에는

41.4%, 마지막주에는 48.4%에 달했다.

주요 병원체로는 ▲장출혈성대장균 등 병원성 대장균(40.6%) ▲캠필로박터균(21.3%) ▲살모넬라균(14.2%) 순이다.

김태순 수인성질환과장은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국지성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세균성병원체의 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워킹레일

요양원 061) 395-2580
주간보호 061) 394-0123

신세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장성읍 방울샘길 12 (영천리 1493-5)